21m 높이 고속도로, 조망권 침해 논란

장흥 부산면 주민들 교량 공사로 변경 요구
도공측 "설계 변경 불가"…4년째 줄다리기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인 무안~장흥간 고속도로 구간인 장흥 부산면 주민들과 도로공사측이 조망권 침해 논란으로 4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장흥지역 주민들은 3공구 구간인 부산 평야를 가로지르는 높이 21m의 고속도로가 들어설 경우 인근 3개 마을 500여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113m에 이르는 3공구 구간을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 공법 구간 대신 교량에 의한 공사로 설계변경해 줄 것을 지난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IC(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장흥의 관문이어서 거대한 흙 벽이 조성될 경우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도공측은 성토 공법으로 113m의 고속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변 마을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조망권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성토계획 노선인 10필지(1만6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서둘러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국토부가 최근 설계변경 불가 입장을 시공사인 동부건설측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도로공사와 건설사측이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재개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는 무안~장흥간 고속도로공사는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이며 장흥~광양간 2차공사는 1년 후인 2011년에 준공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이봉주와 함께 달리고 선상 삼치 낚시 체험

지난달 30~31일 완도 소안 항일문화축제 성료

'제 5회 소안 항일문화축제'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완도 소안 항일운동기념관 광장에서 개최됐다.

소안도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종식 군수, 정은상 군의회 부의장, 각급 유관기관장, 출향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랑스런 소안인상'을 수상했다.

30일 열린 '송내호 선생배 마라톤 대회'〈사진〉에는 이봉주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전국 400여 건각들이 참가해 항일운동 기념관을 출발, 미라리~동진리~서중리~이목리 등 21㎞를 달렸다.

또 31일에는 선상 삼치낚시, 선상 일출체험, 월항리 개매기·고기잡이 체험 등과 함께 댄스공연, 사물놀이 공연, 팔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소안도는 일제 치하에서 송내호·정남국 선생 등이 주도해 활발한 항일운동을 벌여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곡성·장성군 재정
외부 의존율 60% 넘어서

곡성군과 장성군의 살림살이 외부 의존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과 장성군이 공시한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살림살이(재정) 규모에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율은 곡성군이 65.3%, 장성군이 62.4%로 집계됐다.

곡성군의 경우 지난해 총 재정 규모 2천400억원 가운데 의존 재원은 1천568억원으로 65.3%인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34.7%인 832억원에 불과했다.

장성군도 총 재정 규모 3천2억원에서 자체 수입은 1천129억원으로 37.6%인 반면 외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천873억원으로 의존율이 62.4%에 달했다.

순 채무액은 장성군이 48억원, 곡성군이 8억원이었다.

지자체의 지방재정공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로,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진단에서 2006년과 2007년 연속 A등급 판정을 받아 상 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다. /장필수기자 bungy@

강진만 숭어잡이 강진군 대구면 강진만 선착장에서 숭어잡이가 한창이다. 청정 갯벌에서 잡히는 강진만 숭어는 살이 통통히 오른데다 육질도 뛰어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 '건강郡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력

氣찬랜드·웰빙 도로 등 관광객 급증

영암군이 청정자원을 활용한 '건강군(郡)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년 동안 건강을 테마로 한 건강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천억 원을 밑돌던 재정규모가 4천억 원대로 늘어났고, 웰빙열풍을 타고 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장한 월출산 '기(氣)찬랜드'에는 여름철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또 기찬랜드와 연계한 기(氣) 웰빙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고, 올해까지 왕인박사유적지~수박등~탑동 약수터~氣찬랜드~용추폭포까지 6.8km 구간 공사를 완료, 방문객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앞으로 왕인박사유적지를 경유해 학산면 용산, 광암을 거쳐 미암면 남산리까지 '100리 氣 웰빙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또 낙후된 영암 시가지 개선사업도 병행한다.

우선 100여 년 동안 영암읍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달동네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군은 223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동무 지구와 역리 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등 도심 가꾸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영암군의 핵심 주거지인 영암읍 터미널 앞 로터리와 남풍리 기공원, 낭산로, 춘양리 일원에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 오는 2010년까지 도로변 80㎞에 2만7천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기로 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월출산의 맑은 기운과 접목시켜 전국 최고의 건강지역으로 만들어 내겠다"면서 "'영암=건강'이란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해남 화산~가차 도로, 국도 77호선 연결

국토관리청 타당성 조사

국도 77호선(여수~영광) 중 전남지역 미개설 구간과 해남 화산~가차 도로 2㎞를 잇는 공사가 진행된다.

전남도는 1일 국도 77호선과 해남 화산~가차 도로의 화산 구간을 잇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이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산~가차 도로는 전남도가 2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최근 완공됐으나 국도를 2km 남겨놓은 채 도로를 잇지 않고 공사를 끝마쳐 버려 '반쪽도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보 8월22일자 10면 보도〉

지방도였던 화산~가차 도로는 2002년 국도로 승격되면서 공사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전남도의 관할책임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반쪽도로라는 비난이 일자 전남도와 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를 거쳐 끊어진 도로구간에 대한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키로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개설 구간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벌인 다음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차량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개설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 신안비치호텔
서남권 최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목포 신안비치호텔이 전남 서남권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신안비치호텔은 1일 "호텔 뒤쪽에 동시통역실 등 첨단 설비를 갖추고 1천5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연말 완공 목표로 오는 22일께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신안비치호텔 측은 호텔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목포=임영춘기자 ly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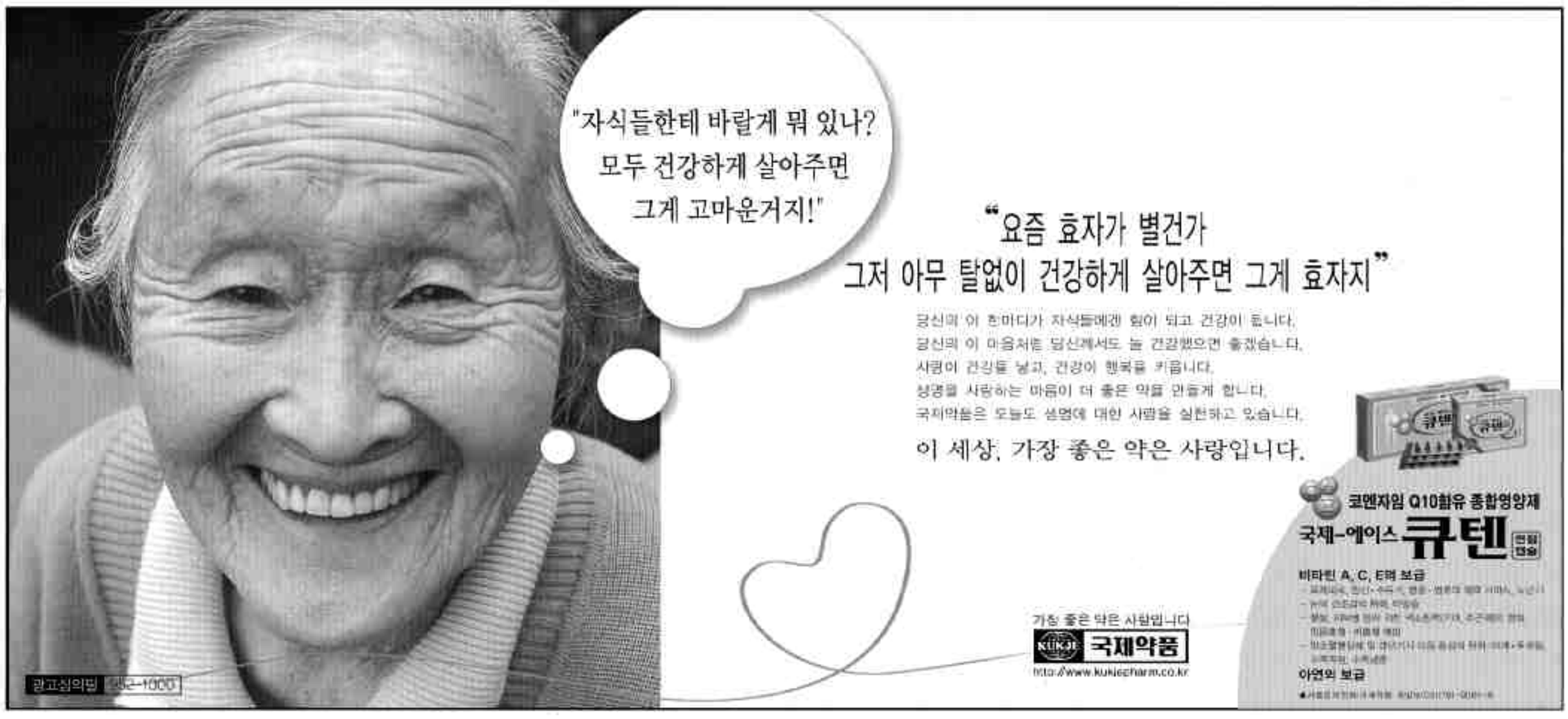
노인 목욕 돕고 소녀가장 반찬 배달

한전 나주지점 사회봉사단 다양한 봉사활동

한국전력 나주지점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 나주지점 사회봉사단(단장 조태웅) 및 협력회사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관내 4개소의 복지시설을 방문, 생필품 및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치매노인시설인 '요안나의 집'을 비롯해 이화영아원 등을 방문, 목욕봉사를 비롯해 주변 제초작업 등 노력봉사도 함께 펼쳐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전'의 이미지를 심었다. 〈사진〉

특히 최근에는 봉황면 등의 결식아동 13명에 대해 '도시락반찬 배달'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태웅 단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